

도, 본격 관광객 유치활동 나서

‘2017 전북방문의 해’ 맞아... 호북성·태국·홍콩 관광설명회, 한일관광교류 확대 심포지엄 참석

2017년은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FIFA U-20 월드컵 등 대규모 체육행사가 전북에서 개최돼 모처럼 만에 관광객 유치의 호기를 맞게 됐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는 2017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며, 본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해 중국, 일본, 홍콩 등 주요국가 홍보활동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와 문화관광교류단 유치를 위해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호북성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행사·인민인 초청 관광설명회와 태권도시범단 공연, 호북성 여유국 방문 및 여행사 상담 등이며 부대행사로 전북 관광사진전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호북성 내 태권도 인구를 겨냥해 태권도 관광상품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청주공항을 통한 입국간소화 및 연계상품 설명과 전북·호북성 간 사전교류전 협의 등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중국 관광객 유치는 그간 중국내 동부해안권에 집중해 추진했는데, 이번 호북성 설명회를 계기로 내륙지방까지 확대하는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콩·태국 등 동남아 시장 겨냥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동남아는 중국, 일본 못지 않게 큰 시장으로 그중에서도 홍콩·태국은 전



“이날은 기뻐해야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통적으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지역이다.

태권도에 큰 흥미를 갖고 있으며, 그들에게 없는 가을·겨울상품을 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태국 관광설명회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방콕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태권도시범 공연, 태권도협회·여행사 관계자 간담 등을 갖을 계획이다.

특히, 태권도 관광상품을 이용한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무주 태권도원, 체험 프로그램, 인근 관광지 등을 집중 홍보한다. 20일부터 24일까지 설명회가 진행될

홍콩은 우리나라 5대 방문국 중 하나로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를 상대로 온라인 홍보 이벤트, 팸투어, 해외수학여행단 유치 등을 협의할 계획이며, 홍콩 여행사에게는 우리 지역의 축제, 생태·역사·문화 관광자원과 무주 태권도원 및 전북투어패스 등을 홍보한다.

또한 전북도는 8일부터 3일간 일본 방한시장 흐름 파악과 전북도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 한일관광교류 확대 방한에 무주 태권도원, 체험 프로그램, 인근 관광지 등을 집중 홍보한다. 이 심포지엄에서 전북도는 특히 일본인이 좋아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

및 한스타일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일본 호남항우회 등의 경로를 통해 일본수학여행단 유치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러나 모처럼만에 찾은 각종 세계대회 및 전북투어패스 등의 호기를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내년을 전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인재용 기자

고창 부안 AI 의심축 추가 발생

김제와 정읍에 이어 고창과 부안에서도 AI 의심축이 신고돼 도내 전역으로 AI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9일 전북도는 고창군 신림면 종오리 농가(사육규모 1만5,000마리)와 부안군 줄포면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 1만 마리)에서 AI 의심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신고 즉시 초동 방역팀 투입, 이동통제 등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정밀검사 결과(PCR) H5형원이 검출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PCR) 결과 H5 형원이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해 방역대 설정 및 이동제한, 농가현황 파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달 21일 김제 금구의 농장에서 AI가 첫 발생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정읍 고부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인재용 기자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워크숍’ 개최

전북도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부안 모항해나루호텔에서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및 경영평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출연기관 경영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자 간 파트너십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경영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전 출연기관이 공유하는 한편 기관 간 그룹토의를 통해 2017년도 경영개선 방향 및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했다. 특히 올해 경영평가 운영을 담당했던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심준식 수석연구원과 한국정보통계의 오민권 대표가 평가결과 도출된 경영 개선사항에 대해 직접 맞춤형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새만금 홍보관 방문 및 짬뽕리 행사장 시찰 등을 통해 도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도와 출연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인재용 기자

전북 신선농산물, 일본시장 개척 박차

관동지역 중·대형 슈퍼 80개 매장에서 판촉행사 진행

일본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전북도가 발 벗고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신선농산물 일본 판촉행사를 일본 관동지역에 넓게 포진한 중·대형 슈퍼인 이스파(Esposito)와 토리센(Torisen) 80개 매장에서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NH무역 일본지사와 함께 진행하며 남원 운봉의 파프리카와 정읍의 새송이버섯과 애호박이 일본 현지 소비자를 만난다.

이를 위해 파프리카 이외에 새로이 오이, 새송이버섯, 애호박 1톤이 마켓 테스트 차원에서 지난주에 선적됐으며, 이번 행사를 통한 소비자의 수요 및 기호 파악과 함께 판매 추이를 평가해 추가 수출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파프리카와 참이를 포함한 화훼류 그리고 토마토, 수박 등이 일본 수출의 주요 품목이었던 상황에서 전북도의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시도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도 박진두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판촉행사를 통해 전북 신선농산물의 일본 수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판로

개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말 현재 대 일본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3% 증가한 3,199만달러로 집계됐다.

파프리카가 950만달러로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김과 장미, 인삼류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북도는 지난달 21일에 베트남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꾀하기 위해 배·사과·포도 등 신선농산물 베트남 판촉행사로 개최했다. /인재용 기자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전북도는 지난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16년 제4차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관·군·경이 다 함께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미 대선 등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동북아 외교안보의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 및 화성방 사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성과보고와 함께 내년 민방위 시행계획과 도서지역 관리 및 등급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인재용 기자

‘군산물류단지 조성사업’ 속도 낼까

시행사 PF자금 추진... 마무리될 경우 내년 1분기 착공 · 2018년 말 완공 기대

지지부진했던 군산물류단지 조성사업이 2009년 사업을 추진한 이래 9년 만에 모습을 드러낼 지 주목된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물류단지조성사업이 전북도에 의해 승인된데 이어 사업 시행사인 A업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총 1257억원을 투자해 개사동 일원(옥녀저수지 부근)에 1단계 32만9000㎡(약 10만평), 2단계 16만5000㎡ 등 총 49만4000㎡ 규모로 물류터미널을 비롯해 집배송시설, 창고

등 지원 및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군산물류단지 개발은 2010년 국가물류시설종합계획에서 군산권이 ‘매우시급’ 지역으로 분류돼 반영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군산산업단지 물류 배후거점 조성, 군산권 물류기반 확충에 따른 물류비 절감, 물류 및 지원시설의 적정 배치로 인한 지역발전 견인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시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진출입과 관련, 연장 646m, 폭 24m 편도 2차선의 진입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종료 후 4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행사인 A업체는 물류단지의 조성을 위해 PF자금 추진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단지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대와 달리 상당 기간 터덕거렸다. 당초 이 사업은 입피면에 조성 예정이었으나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개사동 일원으로 입지가 변경됐고, 사업시행사 역시 바뀌었다.

또 사업과정에서 승인신청, 반려, 행정심판, 개발배정면적 취소 및 재신청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한 상태다. 지역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따른 경쟁력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적인 절차에 묶여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것.

이런 가운데 시공사인 A업체가 이달 중으로 PF 자금 문제를 마무리지을 경우 내년 1분기쯤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오는 2018년 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사의 사업비조달이 사업 착공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